

1.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거나
여기 QR코드를 찍으셔서 바로 등록 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필수 성경공부인 '길찾수(길을 찾다 만난 예수)' 성경공부를 이수하셔야 합니다.



2024.12.8 (581호)

2. 아침묵상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6시에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송됩니다.

3. 대강절기간(Advent)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강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4. 투게더 중창단 모집

새해부터 주일예배 때 함께 찬양할 중창단을 모집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정재신 사모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성탄, 송년

12월 22일(주일) : 성탄축하예배 (25일 성탄절에는 따로 예배가 없습니다.)
12월 29일(주일) : 송년주일예배 (31일 송구영신예배는 따로 드리지 않습니다.)

비례판정 1:6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을 머리에 사람을 가슴에



지난 주 (12/1) 현금 통계

선교구제 현금란이 없는 이유는 매주 전체 현금에서 5%를 선교구제비로 구별하기 때문입니다.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해 재정 보고서를 매월 첫째 주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총 액

\$1,190.00

tcc@togetherchus.org

201-580-4123

276 Haworth Ave, Haworth, NJ 07641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	다함께	
*찬양과경배 Songs of Praise	다함께	
기도 Prayer	최빅토리아	
*주님의기도 Lord's Prayer	다함께	
*성경봉독 Scripture Rec	누가복음 11장 14-23	다함께
말씀선포 Sermon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한 것	유형선
*찬양 Praise	다함께	
*봉헌&축도 Offering&Benediction	유형선	

*가 있는 순서에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세요
현금은 예배당 입구에 들어오면서 현금함에 넣어주세요.

주일대표기도

12월 15일(대강절 셋째)	12월 22일(성탄주일)
강민선	김주연

예배시간안내

주일예배	오후 2시 (본당)
수요성경공부	저녁 7시 30분 (온라인)
아침묵상	(화,수,목,금) 매일 오전 6시 (Youtube)

공동기도제목

1. 말씀 안에서 - 부활 신앙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2. 나라와 민족 - 민족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3. 교회와 선교 - 교회가 십자가 앞에 무릎꿇고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한국교회에만 있는 잘못된 해석으로 탄생된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강청기도'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응답 주실 때까지 구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의미로 한국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기도 방식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인간의 의지로 생떼를 쓰면 무엇이든 다 들어주신다는 기복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즉 배우지 않은 기도는 진짜 성경적인 기도라고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의 핵심은 하늘의 양식을 구하는 기도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양식은 육의 양식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만나, 즉 생명의 양식을 의미합니다. 생명의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지난 주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도 같은 맥락입니다. 마르다는 분주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고 마리아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인생이 참 고달픕니다. 그런 그녀에게 복이란 좋은 남편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에게 네가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다른 것을 구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생수, 즉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먹어도 먹어도 채워도 채워도 배가 고풀 우리의 배고픔과 목마름이 근본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명의 양식을 강청하여 구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생명의 양식도 우리가 인간적으로 구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무엇이 본질이며 무엇이 진리인지를 안다면 그것을 구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이며 생명의 빵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실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콜로세서에서 바울은 기도에 힘쓰라고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깨어 있으라고 표현합니다. 만약 강청기도가 기도라면 깨어 있으라는 말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깨어 있다는 건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말과 동의어인데 그 다음 구절에서 말씀의 문을 열어 주시기를 간구하라고 설명합니다. 즉 깨어 있으라는 건 말씀하신 성령님, 예수님, 성부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전된 우리의 몸을 자기의 의를 쌓는 강도의 소굴로 전락시키지 않게 될 것이요 말씀이 거하는 기도하는 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신 적이 있습니까?